

항균 · 보습효과가 있는 알로에

기원전 옛날부터 사람에게 친숙하여 온 알로에는 여러 가지 약효를 가진 식물이다. 지금까지도 가정에 알로에를 심어서 화상치료를 하기도 하고, 감기가 들었을 때 가정의 치료약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알로에를 재배하는 것은 간단하고 거의 손이 가지 않아도 잘 성장한다. 잘라보면 잘 알 수 있으나 투명한 청색즙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내부에는 수분이 풍부하다. 알로에가 갖는 작용으로 특히 우수한 것은 항균, 보습효과이다. 이러한 효과를 살린 섬유가 있다. 알로에 엑기스를 추출하여 이것을 천연성분으로 만든 고착제로서 면, 나일론, 레이온 등의 원단에 부착시킨 것이다.

항균효과는 높고 병원내 감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의 번식이 미가공포의 1/100,000로 억제된다고 한다. 또 보습효과에 대하여는 수분율이 1% 증가하기 때문에 보습감은 10% 정도 향상한다. 세탁 30회 후에도 그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 현재 병원과 메이커가 공동으로 아토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알로에를 사용한 상품으로서는 시트, 베갯잇, 폴로셔츠, 캐주얼 셔츠, T셔츠, 내의 등이 있으나 가격은 일반제품에 비해 10% 정도 비싸다.

시키보에서 항균효과, 보습효과가 있는 천연성분 알로에(Aloe)로 개발한 ‘알로에쥬’는 항균, 보습효과 외에도 방충효과가 있으며, 천연성분으로 개발되어 피부에도 안전하며, 친환경 바이오 상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침장 소재이다.